

오프로드 거침없이...확 바뀐 벤츠 'GLC 쿠페'

2세대 완전변경 모델 'GLC 300 4MATIC 쿠페' 공식 출시 역동적 외관·여유로운 실내...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적용

메르세데스-벤츠가 'GLC 쿠페'의 2세대 완전변경 모델을 선보인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럭셔리 중형 SUV 쿠페 'GLC 쿠페'의 2세대 완전변경 모델 '더 뉴 메르세데스-벤츠 GLC 300 4MATIC 쿠페'를 11일 공식 출시했다고 밝혔다.

2017년 국내에 출시된 GLC 쿠페는 특유의 스타일리한 디자인과 스포티한 주행 성능이 결합된 모델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더 뉴 GLC 쿠페는 2세대 완전변경 모델로, 스타일리시하고 우아한 라인으로 진화된 내외관 디자인, 역동적인 주행 성능과 높은 효율성, 다채로운 편의사양 등을 더해 새롭게 재탄생했다.

더 뉴 GLC 300 4MATIC 쿠페는 이전 세대 대비 길어진 휠베이스와 공기역학적 디자인으로 다이내믹한 비율의 외관을 갖췄다.

헤드램프와 라디에이터 그릴이 매끄럽게 연결돼 차량의 폭이 극대화된 전면부 디자인을 특징으로 한다. 이와 함께 메르세데스-벤츠 패턴의 라디에이터 그릴과 날렵한 디자인의 에어 인테이크를 갖춘 AMG 라인 외장 패키지가 적용됐다. 20인치 AMG 멀티 스포크 경량 알루미늄 휠과 차량과 동일한 색상의 휠 아치 라이너는 깔끔하고 자신감 넘치는 외관을 완성한다.

또 국내 인증 기준 이전 세대 대비 휠베이스가 15mm 길어졌으며, 공기저항계수도 이전 세대보다 0.03Cd 개선된 0.27Cd를 기록했다. 차량의 후면은 짙은 붉은색 디자인 요소로 두 개의 리어램프를 자연스럽게 연결해 차량의 폭과 입체감을 동시에 강조했다.

또 더 뉴 GLC 쿠페에 기본 장착되는 파노라믹 선루프는 더 뉴 GLC SUV보다 6cm 더 길어져 탁월한 개방감을 선사하며, 롤러형 블라인드도 전자식으로 손쉽게 제어할 수 있다. 기본으로 장착된 러닝 보드는 탑승객들의 안전한 승하차를 돕는다.

여기에 최신 디지털 요소와 AMG 라인 인터리어를 적용해 모던함과 스포티함이 결합된 넉넉한 실내 공간을 제공한다. 운전석에 12.3인치 고해상도 LCD 스크린을,



중앙에는 운전석 쪽으로 살짝 기울어진 11.9인치 디스플레이를 배치했으며, 최신 텔레매틱스 NTG 7이 적용된 2세대 MBUX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탑재돼 보다 디지털화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한다.

대시보드에는 새로운 디자인의 통풍구가 적용돼 모던함을 더했다. 도어 패널 디자인도 보다 심플하게 변화했으며, 문 손잡이와 시트 조절 버튼이 하나의 클러스터로 통합돼 깔끔한 인상을 준다. 스위치 패드와 터치 컨트롤 버튼이 개선된 새로운 컨셉의 다기능 스포츠 스티어링 휠은 나파 가죽으로 제작돼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며, 헤드레스트가 등받이와 연결된 새로운 디자인의 시트는 스포티함을 더한다.

더 뉴 GLC 쿠페는 휠베이스가 길어지면서 보다 여유로운 공간을 제공하고, 트렁크 공간도 이전 세대보다 45L 늘어난 545L로 넉넉한 적재 공간을 갖췄다. 트렁크 공간은 2열 시트를 접을 시 최대 1490L까지 확장 가능하며, 이는 이전 세대 대비 90L 늘어났다.

SUV 차량인 만큼 성능과 효율을 겸비한 전동화 파워트레인으로 온-오프로드를 넘나드는 주행 성능을 제공한다.

더 뉴 GLC 300 4MATIC 쿠페에는 4기통 가솔린 엔진(M254)에 48V 전기 시스템이 결합된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됐으며, 최대 출력 258ps, 최대 토크 40.8 kgf·m의 주행 성능을 발휘한다.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2세대 통합 스택



메르세데스-벤츠 'GLC 300 4MATIC 쿠페'. 왼쪽은 내부 모습.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제공)

터 제너레이터(ISG, integrated starter-generator)를 통해 내연기관 엔진에 최대 17 kW의 추가적인 전기 공급을 지원하며, 신속하고 부드러운 엔진 시동을 돕는다. 또한 글라이딩, 부스트 및 회생 제동을 지원해 높은 효율성을 발휘한다.

또 오프로드 주행 모드와 내리막길 속도 조절(DSR, Downhill Speed Regulation) 기능이 탑재돼 온-오프로드를 넘나드는 구동력과 주행 안전성을 갖췄다. 오프로드 스크린은 운전석 및 중앙 디스플레이에 노면의 기울기, 경사도, 지형 고도, 지리 좌표 및 나침반, 스티어링 각도 등 오프로드 주행에 필요한 정보들을 보여 준다. 또한, 360도 카메라와 연계한 투명 보닛은 운전자의 시야가 닿지 않는 차량 전면부 아래 지형을 보여줌으로써, 암석 및 움푹 패인 곳 등 전방의 장애물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여기에 더욱 민첩하고 안정적인 주행을 원하는 고객들을 위해 최대 4.5도의 스티어링을 지원하는 리어 액슬 스티어링과 에어매트 에어 서스펜션을 선택 사양으로 제공한다.

이밖에 최첨단 안전 및 주행 보조 시스템과 럭셔리 SUV에 걸맞은 편의사양 탑재했다.

최신 주행보조 시스템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가 플러스가 탑재됐으며, 헤드램프당 100만 픽셀 이상의 디지털 라이트는 카메라와 센서, 내비게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개별 헤드램프의 픽셀 밝기를 주행에 최적화되도록 조절한다. 여기에, 어댑티브 하이빔 어시스트 플러스, 울트라 레인지 하이빔 등의 지능적인 기능이 제공된다. MBUX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은 전방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에 가상의 주행안내선을 표시해 더욱 직관적인 길안내를 돕는다.

또 NTG7 텔레매틱스 탑재로 ▲지문 인식으로 간편하게 운전자 식별이 가능한 지문 스캐너 ▲차 안에 키를 두고 메르세데스 미 앱을 통해 원격으로 차 문을 열어 타인에게 키를 전달하는 디지털 키 전달 ▲하이패스 결제 금액 및 잔액을 중앙 디스플레이에 보여주는 톨 정산 시스템 등의 편리한 디지털 경험도 가능하다.

이 밖에도 ▲15개 프리미엄 스피커와 710W의 출력, 사운드 개입화 기능으로 새로운 차원의 음향 경험을 제공하는 부메스터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 ▲열선 스티어링 휠과 열선 핸드스크린 워셔 시스템을 제공하는 윈터 패키지 ▲열과 소음을 완화해 편안한 주행을 돕는 열-소음 차단 클래스 ▲공기 청정 패키지 ▲앞좌석 열선 및 통풍 시트 등이 탑재돼 쾌적한 주행 환경을 선사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신차수준으로 바꿨다...현대차 '더 뉴 투싼' 출시

3년만에 부분 변경 모델 공개 강인한 외관·실내 공간 완전 변경 판매가격 2771만원~4004만원

현대자동차가 준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투싼의 부분변경 모델을 선보인다.

현대차는 지난 6일 상품 경쟁력을 대폭 강화한 대포 준중형 SUV '더 뉴 투싼'을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더 뉴 투싼은 3년만에 새롭게 선보이는 부분변경 모델로, 완성도 높은 디자인과 다채로운 편의사양을 갖춘 신차급 모델이다.

현대차는 고급감과 실용성을 모두 갖춘 내·외장 디자인을 구현했으며, 스포티한 이미지를 강조한 N 라인 모델도 출시했다고 설명했다.

더 뉴 투싼의 판매 가격은 가솔린 1.6 터보 모델 2771만~3439만원, 디젤 2.0 모델 3013만~3681만원, 1.6 터보 하이브리드 모델 3213만~3858만원이다.

더 뉴 투싼은 기존 모델의 '파라메트릭 다이내믹스(Parametric Dynamics)' 테마를 계승해 더욱 강인하고 와이드한 모습으로 거듭났다.

전면부는 각진 형상으로 다듬은 라디에이터 그릴과 주간주행등 역할을 하는 파라메트릭 주얼 히든 램프가 강인한 느낌을 전달하며, 후면부의 범퍼 몰딩과 일체화된 스키드 플레이트는 가로 방향으로 확대 적용돼 차량이 보다 넓어 보이는 느낌을 준다.

더 뉴 투싼의 실내는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 플로팅 콘솔 등을 탑재하고 수평을 강조한 설계로 넉넉한 공간감과 실용성을 확보하는 등 신차 수준으로 변화했다.

각각 12.3인치 클러스터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매끄럽게 연결된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는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며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인 'ccNC'가 적용돼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블루링크 스트리밍 서비스 등 첨단 인포테인먼트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컬럼 타입 전자식 변속 레버를 장착해 여유로운 센터 공간에는 공중에 떠 있는 듯한 플로팅



현대차 '더 뉴 투싼'

콘솔을 구성해 수납성을 극대화했으며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과 컵홀더를 병렬로 배치해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

함께 출시되는 N 라인 모델은 기본 모델에 ▲N 라인 전용 라디에이터 그릴(전용 엠블럼 포함) ▲N 라인 전용 19인치 알루미늄 휠 ▲스포츠한 디자인의 전·후면 범퍼 및 스키드 플레이트 ▲바디컬러 사이드 가니쉬 및 클레딩 ▲싱글 트윈팁 머플러 등을 적용해 역동적인 이미지를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하이브리드 모델에는 구동 모터를 활용해 주행 성능과 승차감을 향상시키는 한 차원 진보된 하이브리드 시스템 'E-모션 드라이브'가 적용됐다.

E-모션 드라이브는 급가속 및 코너링 등의 빠른 조향 상황에서 역동적이고 안정적인 운동 성능을 구현하는 'E-다이내믹 드라이브(E-Dynamic Drive)'와 과속 방지턱 등 불규칙한 노면에서 부드러운 승차감을 제공하고 흔들림을 저감시켜주는 'E-컴포트 드라이브(E-Comfort Drive)'로 구성된다.

더 뉴 투싼은 승객 보호를 위해 기존의 고강성 경량 차체에 고밀도 보강을 통해 전반적인 충돌 안전 성능을 강화했다.

또한 2열 사이드 에어백이 추가된 8에어백 시스템과 2열 안전벨트 프리텐셔너를 적용하고 제동 성능을 강화해 동급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했다. 현대차는 더 뉴 투싼에 다양한 인포테인먼트 및 편의사양을 적용해 상품성을 높였다.

현대차는 더 뉴 투싼에 차량의 주요 전자 제어와 연계된 기능을 최신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OTA, Over-the-Air)를 기본 적용했으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통해 영상 및 고음질 음원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블루링크 스트리밍 서비스를 탑재했다.

또한 ▲무선 연결 기능이 적용된 애플 카플레이 및 안드로이드 오토 ▲카페이와 연계해 실물 하이패스 카드 없이 유료도로 통행료 결제가 가능한 e-hi-pass(하이패스) ▲디지털 키 2 ▲실내 지문 인증 시스템 등 첨단 인포테인먼트 사양을 적용했다.

이밖에도 ▲레이더 센서 기반의 어드밴스드 후석 승객알림(ROA) ▲헤드업 디스플레이(HUD) ▲빌트인 캠 2 ▲열량량 제어 파워 테일게이트 ▲아웃사이드 미러 및 운전석 자세 메모리 시스템 등 고객 선호도가 높은 사양을 탑재해 차급을 뛰어넘는 편의성을 갖췄다. /김민석 기자 mskim@

'車시장 큰손' 떠오른 6070

올해 신차등록, 9년만에 77%↑...30~40대 앞질러

올해 60~70대의 신차 등록 대수가 30대의 신차 등록 대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의 최근 10년간 연평균 신차 등록 대수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1월 60~70대의 승용 신차 등록 대수는 22만4095대로, 30대의 등록 대수(19만5182대)를 넘어섰다.

30대의 올해 월평균 신차등록 대수가 1만7743대였다는 점에서 12월 수치를 더하더라도 60~70대의 기록을 넘지 못할 것이 유력하다.

올해(1~11월)는 이미 지난해 수치를 넘어선 18만522대를 기록, 12월 한 달을 집계하지 않고도 2014년 대비 7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70대도 다소 등락이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우상향 곡선을 띠었다. 2014년 3만2222대에서 지난해 3만9144대로 21% 증가했으며, 올해 11월 기준(4만3573대)으로는 3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60~70대의 신차 등록은 조만간 40대의 기록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40대의 신차 등록 대수는 올해 1~11월 23만9823대로 집계돼 60~70대와 불과 1만5728대에 차이 나지 않는다.

최근 10년간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진 연령대는 60대였다. 60대의 신차 등록 대수는 지난 2014년 10만1501대에서 지난해 16만1261대로 59% 증가했다.

70대도 다소 등락이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우상향 곡선을 띠었다. 2014년 3만2222대에서 지난해 3만9144대로 21% 증가했으며, 올해 11월 기준(4만3573대)으로는 3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버튼만 누르면 스노타이어로 변신

현대차·기아, 신기술 공개

겨울철 운전 중 눈길을 만났을 때 차를 멈추고 스노체인을 장착하는 대신 버튼 하나만 누르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다.

현대차·기아는 11일 '형상기억합금을 이용한 스노체인 일체형 타이어 기술'을 공개했다. 형상기억합금으로 이뤄진 체인 모듈이 평소 휠과 타이어 내부에 숨어 있다가, 전기적 신호를 받으면 타이어 바깥으로 튀어나와 스노체인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 기술을 적용하면 버튼을 한 번 누르는 것만으로도 차가 '알아서' 체인을 장착·해제할 수 있다고 현대차·기아는 설명했다. 장착과 해제 모두 복잡한 일반 스노체인보다 훨씬 편리하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스노체인 일체형 타이어는 휠과 타이어에 일정 간격으로 홈을 만들고 그 안에 형상기억합금으로 제작된 모듈을 하나씩 넣은 구조다. 마치 피자나 케이크를 칼로 잘라 조각낸 모양과 비슷하다.

여기에는 형상기억합금이 전류를 가하면 원래의 모양으로 되돌아가려는 특성이 이용됐다. 휠 안쪽의 형상기억합금은 평소 주행 시 용수철의 힘에 눌려 알파벳 'L' 모양을 하고 있다가 운전자가 기능을 활성화하면 전류가 가해지며 원래 모양인 알파벳 'J' 모양으로 변해 타이어 밖으로 모듈이 튀어나온다.

또 타이어가 심하게 마모돼 표면이 일반 주행 상태의 모듈 높이까지 낮아지면 운전자는 출몰된 모듈을 보고 마모를 쉽게 인지해 타이어 교체 주기를 놓치지 않게 되는 효과도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